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1.0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sup>1)</sup>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sup>2)</sup>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중국 칭다오항만그룹, China Merchants Group와의 협력 지속 확대-----	2
□ HPH, 58억 달러 규모 기업공개(IPO) 추진-----	3
□ Kuehne+Nagel사의 성장동력은 기업합병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4
□ 칠레 San Antonio항, 코스타네라 에스피곤터미널 현대화 사업 입찰 예정-----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김성야 연구원(02-2105-2897, [sungyakim@kmi.re.kr](mailto:sungyakim@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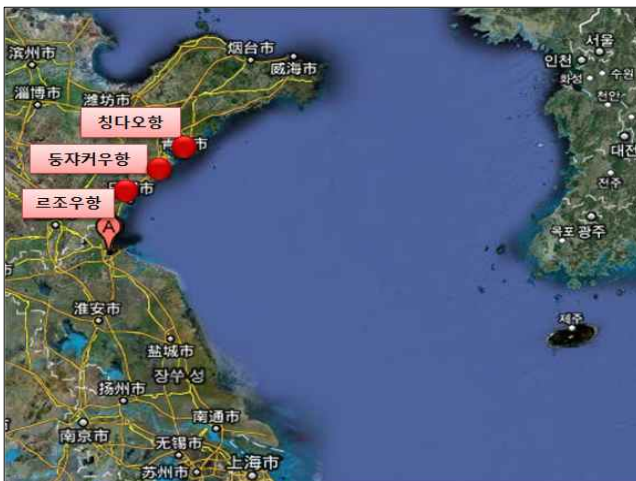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중국 칭다오항만그룹, China Merchants Group와의 협력 확대

- 지난 3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칭다오항만그룹은 향후 China Merchants Group(중국초상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칭다오항 및 초상국의 합작회사인 칭다오연합컨테이너부두유한책임회사는 2010년도 기준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110.5만 TEU를 달성하면서, 기존 목표치의 2배를 기록하였음
  - 2010년 6월, 쌍방은 또 공동 투자하여 칭다오첸완시강(前湾西港)연합부두유한책임회사를 설립 하였으며, 벌크 및 잡화 부두 등을 건설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칭다오항은 대규모 기업간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경쟁력 제고 전략을 내세워 큰 성과를 거두어온데 이어, 향후에도 실력 있는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시설 확대, 물동량 확보 등을 기반으로 항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칭다오항만그룹은 3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칭다오항 및 르조우(日照)항 사이에 위치한 동자커우(董家口)항에 광석, 석유, 석탄 부두 등을 건설 할 계획임

※ 칭다오항의 “12.5”계획 목표치는 2015년까지 항만 물동량 6억 톤, 컨테이너물동량 2,000만 TEU를 처리하는 3억 톤급 항만 및 동북아국제항운중심 건설임

<칭다오항 위치>



<동자커우항 조감도>



자료 : <http://www.chinaports.org>, 2011. 3. 5./ <http://dongjiakou.sdnews.com.cn/>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mailto:sungyakim@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HPH, 58억 달러 규모 기업공개(IPO) 추진

- HPH(Hutchison Port Holdings)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통해 58억 US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추진 중임
  - HPH는 약 36억 주에서 39억 주를 주당 최저 0.91달러, 최대 1.08달러 수준으로 모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비사업설명서(Preliminary Propsoectus)를 지난 2월 28일에 공개하였음
  - 이에 따라 HPH는 주식공모로 최대 42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을 전망됨
  - 또한 HPH는 주식공모와는 별도로 기초투자자들(Cornerstone Investors)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HPH 기업공개 주주구성 비율(초과배정<sup>1)</sup> 없을 경우>

구분	주식수	비중
Sponsor <sup>2)</sup>	3,309,378	38.0%
Cornerstone investors <sup>3)</sup>	1,500,000~1,780,220	17.2~20.4%
Public and Institutional Investors	3,619,290~3,899,510	41.6~44.8%
<b>합계</b>	<b>8,708,888</b>	<b>100%</b>

1) 주식을 공모하면서 인수회사가 공모가액으로 일정분의 주식을 신규로 인수할 수 있는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고, 당초 공모예정물량에 일정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2) HWL, PSA, Cheung Kong Limited 등

3) Ally Holdings Limited \$50M, Aranda Investment Pte. Ltd. \$100M, Capital Research and Management Company \$634M, Cathay Life Insurance Co., Ltd. \$100M, Lone Pine Capital LLC (on behalf of investment funds) \$186M, Metropolitan Financial Services Ltd \$100M, Paulson & Co. Inc. \$350M, Seacrest FIR Incorporated \$100M 등

- HPH의 연간 배당수익율은 5~7%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공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됨
  - Credit Suisse 연구부서의 싱가포르 책임자인 Sean Quek은 '주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언급한 반면, Ample Capita의 애널리스트인 William Lo는 '현재 공모가 수준에서 20%는 내려가야 매력적'일 것이라고 하여 성공여부가 주목됨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1.3.1. / http://www.reuters.com, 2011.2.28 / HPH Preliminary Propsoectus, 2011.2.28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Kuehne+Nagel사의 성장동력은 기업합병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 2009년 시작된 스위스의 Kuehne+Nagel사의 5개년 비즈니스플랜(Go for Growth)이 2010년 계획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Kuehne+Nagel사의 관계자는 밝힘
  - 5개년 비즈니스플랜의 목표는 2014년 Kuehne+Nagel사의 모든 사업 분야가 2009년 기준 두 배 이상 성장하는 계획으로 해상운송포워더 부문 세계 1위, 계약물류부문 세계 2위, 항공, 도로, 철도 부문 세계 3위의 운송사업자로 성장하는 것에 있음
  - 구체적으로는 2014년 매출액은 400억 스위스프랑, 고용인력은 9만명, 해상운송물량은 5백만TEU, 항공운송물량은 130만톤, 도로 및 철도 운송부문 매출액은 50억 스위스프랑, 계약물류 부문 매출액은 60억 스위스프랑에 이르는 것임
- Kuehne+Nagel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매출액은 2009년 190억 스위스프랑 대비 22%, 해상, 도로 및 철도부문 사업은 2009년 대비 16%, 항공부문 운송물량은 2009년 80만톤 대비 25% 증가하였다고 밝힘
  - 단, 계약물류부문은 매출액은 2009년 43억 달러 대비 5% 감소
- 이러한 Kuehne+Nagel사의 성장은 기업합병과 이머징시장 및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Kuehne+Nagel사의 관계자는 밝힘
  - 기업합병의 사례로 Kuehne+Nagel사는 2011년 유럽과 영국간의 화물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영국의 RH Freight사를 합병하여, 영국과 유럽간 식품운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 RH Freight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영국과 남미, 중동 및 아시아간의 식품운송시장 참여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더욱이 Kuehne+Nagel사는 그동안 서비스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아시아역내시장에서의 물류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음

※ RH Freight사는 연간 42만 5천건의 화물운송계약을 취급하는 영국 최대 도로운송서비스 제공 기업임

자료 : CI-online. 2011. 3. 3.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칠레 San Antonio항, 코스타네라 에스피곤터미널 현대화 사업 입찰 예정

- 칠레 교통운수부는 경쟁력강화, 적체해소,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2011년 중 칠레 중부 샌안토니오항의 Costanera Espigon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Costanera Espigon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1997년 제정된 Ley N° 19542 de Modernización del Sector Portuario Estatal에 의해 계획된 사업의 일환임
  - 칠레 교통운수부는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10개 항만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1998년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998년 세계 경제의 악화 등을 이유로 지연되었음
- 한편, Costanera Espigon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2억 6천만 달러이며, 이 중 인프라 공사에 1억 6천만 달러, 상부시설에 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샌안토니오항만청은 Costanera Espigon 터미널 남부지역에 물류 운영 부지 등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함

※ 2010년 샌안토니오항의 항만물동량은 1,211만 톤으로 2009년 대비 19% 증가함

※ 아울러 컨테이너 물동량은 852만 톤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함

※ 칠레에는 총 36개의 항만이 있으며, 이중 10개 항만이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국가항만이며, 나머지 26개 항만은 민간이 소유한 항만임

- 향후 현대화사업이 계획된 국가항만으로는 샌안토니오항을 제외한 Valparaiso, Talcahuano-San Vicente, Arica, Iquique, Antofagasta, Puerto Montt, Austral, Chacabuco, Coquimbo 9개가 있음

<San Antonio항 위치>



자료: <http://www.estrategia.cl>, 2011. 3. 2./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mailto:ironwon@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